

일반논문

경북 예천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현황과 활용 방안

신 진 희(안동대학교 강사)

목차

1. 머리말
2. 예천 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현황
3. 맺음말을 대신하여 : 과제 및 활용 방안

1. 머리말

경북 예천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1894년 경상도 북부지역에서 가장 먼저 동학농민군 활동이 포착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1864년 교조 최제우 처형과 1871년 이필제의 ‘영해란’ 이후, 동학은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었다.¹ 이러한 상황에서 1894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예천 지역에서 포착된 것은 1894년 3월이었다. 관동대접주 최맹순이 예천 소야에 접소를 두고 동학 포교에 나섰다.² 최맹순은 관동포 수접주로서 옹기 장사꾼으로 위장하여 행상하면서 동학을 전파하여 농민군 조직을 확대하였다. 이 활동은 6월이 되면 크게 성장하여 그 수가 7만여 명, 48접소에 이르렀다고도 한다.

예천 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는 신영우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³ 예천 동학농민군과 보수집강소의 활동은 물론, 경상도 동학농민군의 활약상과 상주 소모영의 진압 활동을 면밀하게 정리하였다. 또 경상도 북부 지역 동학농민군 예천군 유천면 토치접주 박현성, 윤치문, 용문면 모량도감 전기향(전도야지), 관동 수접주이자 동로면 소야 수접주 최맹순, 장복극, 박영수, 전규선 등을 연구하기도 하였다.⁴ 2010년대 들어서는 경북의 동학농민군 연구 속에 예천 동학농민군을 다루거나, 예천 동학농민군 활

1 신진희,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23쪽.

2 『甲午斥邪錄』 1894년 봄.

3 신영우, 「1894년 영남 예천의 농민군과 보수집강소」, 『동방학지』 44, 1984; 「1894년 영남 상주의 농민군과 소모영」 상·하, 『동방학지』 51, 1986; 『갑오농민전쟁과 영남 보수세력의 대응-예천·상주·김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4 신영우, 「1894년 영남 서북부지방 농민군 지도자의 사회신분」, 『학림』 10, 1988.

동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⁵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에 등록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총 375곳이다. 그 가운데 전북이 117건(31.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남(21.6%), 충남(18.7%), 경북(9.6%) 순이다.

〈표 1〉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유적지	2	2	5	3	1	1	4	14
지역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유적지	28	70	117	81	36	11	0	375

* 출처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북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10%도 되지 않는다. 예천 지역 동학농민군 관련 사적지를 조명한 연구는 2001년 동학학회에서 『동학의 문화유적 순례』I (영남지역 2)에서 진주·하동·김산·상주의 동학농민군 활동 개관과 함께 서술하였다.⁶ ‘경상 북서부 지역

5 신영우,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0, 2006; 「1894년 영남의 동학농민군과 동남부 일대의 상황」, 『동학학보』 30, 2014; 「경상감사 조병호와 갑오년의 경상도 상황」, 『동학학보』 35, 2015; 채길순, 「경상북도 지역의 동학 활동 연구 -사적지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27, 2013; 홍동현, 「1894년 동학농민군의 향촌사회 내 활동과 무장봉기에 대한 정당성 논리 -경상도 예천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18, 2014; 최재복, 「19세기 경상도의 유교전통과 민족종교 동학·동학 내의 ‘유교’ 재평가를 접해서」, 『동학학보』 35, 2015; 고순희, 「근대기 국문실기 <학초전> 연구」, 『국어국문학』 176, 2016; 이광우, 「동학농민전쟁기 경상도 유림의 향약 시행」, 『민족문화논총』 68, 2018; 윤인선, 「로고테라피의 실천으로서 『학초전』에 나타나는 자서전적 글쓰기」, 『문학과 종교』 25, 2020; 한경희, 「동학군 기록 『학초전』 고찰」, 『동학학보』 58, 2021; 「『갑오척사록』에 나타난 예천 동학농민혁명 고찰」, 『동학학보』 61, 2022; 김영진, 「동학사상과 경상도 예천 지역 양반의 디스토피아적 세계관 -『학초전』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60, 2021 등.

최대 동학농민혁명 전투지’로 ‘예천’의 사적지를 살핀 연구도 있다.⁷ 이들 연구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를 다니면서 예천도 함께 소개한 글이다. 2010년과 2021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 현황조사』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편람』을 발간하였는데, 그 안에 경상북도 전체 유적지와 기념시설이 현황과 함께 소개되어 있다. 이 도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공개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경상도 예천 지역 동학농민군 관련 유적지를 정리하고 과제와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등록된 예천 지역 동학농민군 유적지(7곳)와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추가 조사가 된 유적지(2곳)를 정리하였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과제 등을 제시하여 경상도 북부지역에서 가장 먼저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포착된 예천 지역 동학농민군 활동이 잊히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2. 예천 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현황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등록된 예천 지역 동학농민군 유적지는 6곳이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당시 예천이었던 소야리는 현재 문경시 산북면에 속하는데, 이곳을 포함한다면 7곳이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

6 동학학회, 『동학의 문화유적 순례』 I (영남지역 2), 2001.

7 채길순, 『새로 쓰는 동학기행』 2(경상북도·경상남도·북한편), 모시는사람들, 2021: 「경상북도 지역의 동학 활동 연구 -사적지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27, 2013, 114~118쪽. 채길순은 서정자전투를 굴머리전투라고 칭하고 있다.

면 다음의 표와 같다. 행정구역 변천으로 지금은 문경에 포함된 곳도 있지만, 예천 동학농민군의 모습을 살피기 위해서는 당시 예천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하도록 하겠다.

번호	유적지 명	현재 주소
1	예천 집소 터 및 최맹순·최한걸 부자 집터	경북 문경시 산북면 소아리
2	예천 동학농민군 근거지 및 전투자-금당실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3	예천 동학농민군 생매장 터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79(충효로 395) 예천스타디움 근처 한천
4	예천 동학농민군 서정자 전투지	경북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91-1, 83, 85-2, 86-1 일대
5	예천 동학농민군 금곡포덕소-함양박씨 儒稷所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333, 334(금당실길 150)
6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기항 (全基恒, 전도야지) 묘소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산 31
7	예천 보수집강소 본부-예천관아	경북 예천읍 서본리 49-6(효자로 43)-예천초등학교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1-1(대창학교길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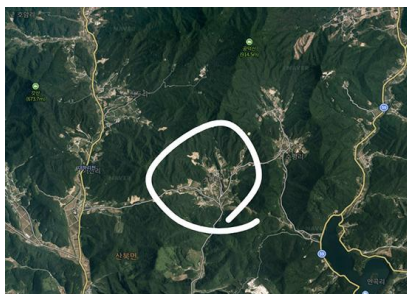
여기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등록된 예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7곳과 추가로 살피야 할 2곳(용궁현청과 화지도회 터)까지 총 9곳을 예천 동학농민군 전개 과정 순서에 따라 살피고자 한다. 1) 예천 집소 터 및 최맹순·최한걸 부자의 집터, 2) 예천 보수집강소 본부-예천관아, 3) 예천 동학농민군 금곡포덕소-함양박씨 儒稷所, 4) 예천 동학농민군 근거지 및 전투자-금당실, 5) 예천 동학농민군 생매장 터, 6) 동학농민군 무기 탈취 타-용궁현청, 7) 예천 동학농민군 화지도회 터-유천면 화지리, 8) 예천 동학농민군 서정자 전투지, 9)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기항 묘소의 순서로 살핀다. 예천 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적지를 사건의 순서대로 살피기 위함이다.

1) 예천 접소 터 및 최맹순·최한걸 부자 집터 : 문경시 산북면 소야리

예천의 동학농민혁명은 최맹순(崔孟淳)이 1894년 3월 소야(蘇野)에 접소를 설치하고 동학 포교에 나서면서 시작되었다.⁸ 예천 소야는 당시 예천군 동로면에 속했으나, 현재 문경시 산북면 소야리를 말한다. 관동포 수접주 최맹순은 옹기 장사꾼으로 위장하여 행상하는 동시에 동학을 포덕하여 농민군 조직을 확대하는 연결망을 형성하였다.



문경시 산북면 소야리 표지석 사진



문경시 산북면 소야리(중앙-네이버지도)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던 한재(旱災, 가뭄과 그로 인한 피해 등)와 상주 낙동·함창 태봉에 일본군 병참부가 설치되면서 경상도 북부지역의 민중이 느낀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에 6월이 되면서 최맹순이 이끈 동학농민군 세력이 크게 성장하여 그 수가 7만여 명, 48접소에 이르렀다고도 한다. 최맹순이 설치했다고 하는 접소의 터나 최맹순·최한걸 부자가 살았다고 하는 집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정확한 위치 비정이 어려워 산북면 소야리를 그 주소로 확정하였다. 현장조사나 지도를 살펴보면, 소

8 『甲午斥邪錄』 1894년 봄.

아리는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마을 사진을 찍기에 곤란한 점이 많다. 따라서 드론으로 촬영해야만 지형을 확인할 수 있다.

2) 예천 보수집강소 본부-예천관아 :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49-6(효자로 43)

7월 5일 동학농민군이 예천 읍내에 들어와 전 영장이었던 이유태(李裕泰)를 구타하는 사건이 일어나기에 이른다.⁹ 15일 예천접주 박래헌(朴來憲)이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안동부사의 행리를 빼앗았다.¹⁰ 이러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자, 7월 24일 예천읍 향리들이 객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다음 날인 25일 예천군수가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그래서 예천의 집강소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세력이기 때문에 ‘보수집강소’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예천군수가 설치한 ‘보수집강소’는 예천관아와 객사를 활용하여 설치되어, 이후 본부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위치는 원래 경북 예천읍 서본리 49-6번지(효자로 43)이다. 현재 예천초등학교가 들어서 있고, 예천관아나 객사가 있었던 원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예천관아 객사 건물은 1927년 3월, 대창학원 원장 김석희(金碩熙)가 예천읍 노상리 1-1번지(대창학교길 24-1)로 이迁하였다. 현재 이곳은 대창중고등학교 교장실과 행정실, 인쇄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객사 건물이 그대로 보존된 것이 아니라 일부 개조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에서 살필 수 있듯이, 맞배지붕 건물에 차양 역할[庇]을 하는 부분을 덧붙인

9 『甲午斥邪錄』 7월 초5일조

10 『甲午斥邪錄』 7월 15일조

부분은 조선 건축의 전통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1927년 이 건 당시 덧붙여 설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천객사·대창중고등학교 체육관 짓기 전 건물 앞모습



예천객사·대창중고등학교 체육관이 지어질 당시(2012년) 건물 뒷모습

2012년 예천관아 건물 앞에 대창중고등학교 체육관이 지어져 앞모습 사진을 찍기보다 뒷모습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에는 예천관아 건물이 있는 곳의 주소를 예천관아 위치로 적고 있는데, 원래 예천관아 위치인 예천읍 서본리 49-6번지(현 예천초등학교 자리)와 건물의 이전 위치인 노상리 1번지(대창중고등학교)를 병기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3) 예천 동학농민군 금곡포덕소-함양박씨 儒稷所 :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333·334(금당실길 150)

8월 2일 동학농민군이 예천 읍내를 장악하고,¹¹ 3일 유계소(儒稷所)를 점거한 후 접소를 설치하였다.¹² 8일 권경함(權景咸)이 금당실에 접소를 설치하였다.¹³ 예천 함양박씨의 유계소를 빼앗아 점거하고 금곡포덕소(金谷布德所)라고 불렀다.

금곡포덕소는 예천 ‘보수집강소’에 통문을 보내 9일에 잡아간 동학농민군 11명을 석방하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¹⁴ 하지만 8월 10일 예천 ‘보수집강소’가 동학농민군 11명을 한천 모래밭에 생매장하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였다. 이 일로 인해 경북 북부와 충청도 일부 지역 동학농민군까지 가세하여 예천 읍내를 압박하게 되었다.

11 『甲午斥邪錄』 8월 초 2일조.

12 『渚上日月』 1894년 8월 3일자(박성수 주해, 『저상일월』, 민속원, 2003, 189쪽).

13 『甲午斥邪錄』 8월 초8일조.

14 『甲午斥邪錄』 8월 10일조.



금곡포덕소(상금곡리 333·334(금당실길 150))

금곡포덕소가 있었던 함양박씨 유계소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불에 타 버렸으나, 함양박씨 문중에서 복원하여 경담재(鏡潭齋)라는 현판을 걸고 있다. 유계소가 있는 금당실(용문면 상금곡리)은 동학농민군의 근거지 가운데 하나였다. 이 유계소는 8월 28일 서정자전투(굴머리전투)에서 용기를 얻은 민보군에게 습격당하였고, 30~40호에 달하는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집이 소각되었다.¹⁵

4) 예천 동학농민군 근거지 및 전투지-금당실 :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금곡포덕소가 있었던 함양박씨 유계소가 있던 마을은 『정감록(鄭鑑錄)』에 나오는 이른바 ‘십승지(十勝地)’ 가운데 하나이자, 16세기 초 명당을 찾아 이주한 함양박씨의 세거지이기도 했던 금당실이었다. 현재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인데, 이곳은 예천 동학농민군의 근거지인 금곡

15 『渚上日月』 1894년 8월 29일조.

포덕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당실 입구에 있는 송림에서 전투가 벌어지기도 하였으며, 8월 28일 금곡포덕소가 습격당할 때 금당실에 있던 30~40호에 달하는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집이 소각되기도 하였다.¹⁶

9월에 들어 금당실 농민군은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으나, 9월 13일에 예천 보수집강소 민보군의 공격을 받고 32명이 체포되었다. 10월에 들어서는 금곡의 사족들이 동제를 지내고 동약(洞約)을 강제로 정하고 무기를 점고하는 등 반농민군 세력이 강화되면서 금곡의 농민군 활동도 사실상 끝나고 말았다.

금당실 마을은 동학농민운동 당시 이곳 송림을 사이에 두고 농민군과 일본군이 대치했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정확한 전투 일자나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금당실과 송림(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현재 송림은 천연기념물 제469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송림 안쪽으로 금당실 마을이 있고, 바깥쪽으로 1971년 3월 설립된 용문중학교

16 『渚上日月』 1894년 8월 29일조.

(용문면 상금시장길 45-2)에서 1922년 5월 설립된 용문초등학교까지 송림이 이어져 있다. 금당실과 송림 옆에 오미봉이 있는데, 금곡포덕소에서 활동한 전기향의 묘소가 있다.

5) 예천 동학농민군 생매장 터 : 예천읍 동본리 479(충효로 395) 예천스타디움 옆 한천 가

8월 3일 금당실에 설치된 금곡포덕소는 예천 ‘보수집강소’에 통문을 보내 9일에 잡아간 동학농민군 11명을 석방하라고 요청했다.¹⁷ 그러나 11명의 동학농민군은 이미 예천 ‘보수집강소’에 의해 한천 가에 생매장된 다 음이었다.¹⁸ 이 사건은 예천 동학농민군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으로, 동학 농민군 측이 예천 ‘보수집강소’에 통문을 보내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 하는 등 압박하였다.



예천 동학농민군 생매장 터(동본리 479(충효로 395))

8월 20일경에는 경상도뿐만 아니라 충청도·강원도의 각 접소에 사통

17 『甲午斥邪錄』 8월 10일조.

18 『甲午斥邪錄』 8월 10일조.

을 돌려 상주의 이정과 예천 소야 등지에 모여 예천을 공격하자고 하였다. 이에 따라 관동대접(關東大接)과 상북·용궁·충경·예천·안동·풍기·영천·상주·함창·문경·단양·청풍의 13접주가 상주 산양(山陽)과 예천 금곡 및 화지(花枝)에서 대회를 열었다.

예천스타디움이 지도 오른쪽 맨 위에 있다. 예천을 가로지르는 한천이 길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예천스타디움 근처를 생매장 터라고 비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집강소가 생매장이라는 방법으로 예천민들에게 경계시키려 했던 의도를 생각한다면, 예천관아 앞에 있는 한천체육공원 부근에 동학농민군을 묻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동학농민군 11명이 생매장된 터는 현재 <동학농민군생매장터> 비석만 세워져 있다. 예천읍 충효로 395 예천스타디움 옆 강변 기슭에 있다. 예천 동학농민군 생매장 터의 정확한 위치를 비정하지 못하였지만, 1999년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동학농민군생매장터> 비를 세워 예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6) 동학농민군 무기 탈취 장소-용궁현청 :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191-1

동학농민군 11명이 예천 보수집강소에 의해 생매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영남 동학 38접은 예천읍을 공격하기 위해 용궁의 군기를 탈취하였다.¹⁹ 이 사건으로 인해 조정에서는 용궁현감 이주의(李周儀)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²⁰ 동학농민군의 용궁 무기 탈취사건은 예천집강소가

19 『羅巖隨錄』 1894년 8월조.

20 『羅巖隨錄』 1894년 9월. 二二〇 新式節目(九月).

안동도총소에 원병을 요청하고, 예천군수 조원하(趙爰夏)가 안동진관에 구원을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다.²¹ 동학농민군의 위세가 등등해지는 상황에서 동학농민군과 민보군의 대립도 날카로워졌다.

용궁현은 철종(1856) 때 홍수를 만나 省火川 주변으로 치소를 옮겼고, 1895년 안동부 소속,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예천군에 통합되었다. 읍부리에 복원한 용궁현청 위치가 동학농민군이 군기를 탈취했던 용궁현 청이었을 듯하다.



용궁현청(읍부리 191-1번지)



『嶺南邑誌』 내 「龍宮縣」(1895)



「宦遊帖」中 龍宮地圖 확대

21 『甲午斥邪錄』 8월 26일조.

1895년 『영남읍지』에 용궁현의 지도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남아 있다.²² 읍치와 향교의 위치와 1895년 당시 용궁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1856년 홍수 전 용궁현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 가능한 지도가 국립민속박물관에 남아 있는데, 바로 「환유첩(宦遊帖)」이다.²³ 「환유첩」은 홍기주(洪岐周)가 관직생활을 했던 14개 고을 지도들을 재임 순서대로 묶어 만든 지도책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편자인 홍기주는 1858년 30세의 나이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고,²⁴ 1875년 용궁현 감으로 부임하여 당시 용궁현의 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에서 홍수가 나기 전 용궁현은 용궁향교의 오른쪽에 위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예천 동학농민군 화지도회(花枝都會) : 예천군 유천면 화지리

동학농민군 11명이 한천 가에 생매장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예천 동학농민군은 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금곡과 화지에서 대회를 열었다. 금곡은 금곡포덕소가 위치한 용문면 금곡리(금당실)였고, 화지는 유천면 화지리였다. 1894년 8월 21일, 화지도회(花枝都會)라고 불렀던 동학농민군 대회에 동학농민군 1만여 명이 모였다.²⁵ 바로 직전에 민보군과 싸움에서 패배한 의성과 안동의 동학농민군들도 이 소식을 접하고 화지동으로 피신해 왔다.²⁶ 이로써 예천 읍내 공격의 기반을 마련하여, 동학농민군이 화지동을 중심으로 예천군을 포위하였다.²⁷

22 서울대학교 규장각.

23 국립민속박물관.

24 『崇禎紀元後四戊午式司馬榜目』(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25 『甲午斥邪錄』 8월 21일조; 「화지 대대회 소집」, 『鶴樵傳』 1.

26 『甲午斥邪錄』 8월 23일조.



예천군 화지리 전경

화지의 접사(接司)는 김노연(金魯淵)이었다.²⁸ 화지도회는 8월 28일 예천읍 공방전에서 금곡포덕소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동학 농민군 근거지였다. 또 21일 화지도회가 열린 후, 동산에서 전투가 벌어 지기도 했다.²⁹ 8월 28일 서정자들 전투에 임했던 동학농민군 주력이 바로 이 금곡과 화지도회에 참여한 농민군이었다. 유천면 화지리는 앞에 작은 냇가 흐르고 너른 들이 있어서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였다. 다만 정확한 위치를 비정하기 어려워 주소를 적을 수 없었다.

8) 예천 동학농민군 서정자 전투지 :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91-1(서정자들), 83, 85-2, 86-1 일대

1894년 8월 27일 민보군의 총수 100여 명이 현산 옆 골짜기에 잠복하였다.³⁰ 잠복했던 이들은 다음 날 “적병 1만여 명이 가득 몰려오는데 10

27 『甲午斥邪錄』 8월 23일조.

28 『甲午斥邪錄』 8월 28조.

29 「화지 동산 전투」, 『鶴樵傳』 1.

여 리에 이어져 있으며 고함 소리가 땅을 진동합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즉, 현산이 전투지로 활용되지는 않았으나 동학농민군의 예천 공방전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민보군이 잠복하고 있었던 것은 전투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었던 곳임을 증명한다.



서정자들 - 현산 - 예천관아 터

동학농민군이 예천읍을 공격하기 위해 주둔했던 곳이 유정(柳汀)이다.³¹ 한천을 사이에 두고 현산에는 민보군이 잠복하고 있었고, 한천을 건너 유정에는 동학농민군이 가득 들어서 있었다. 서정자들의 높이가 개간되기 전, 유정에는 버드나무 숲이 빼곡했다고 한다. 『학초전(鶴樵傳)』에는 “서정자 십 리 제방 위에 있는 버드나무 앞이 빛나고 있었다”고 표현할 정도였다.³² 유정에 주둔한 동학농민군은 술개들을 거쳐 한천을 건너 현재

30 『甲午斥邪錄』 8월 27일조.

31 『甲午斥邪錄』 8월 28일조.

예천초등학교에 있었던 예천관아를 공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천관아를 점령하려는 동학농민군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현산에 민보군이 잠복했던 것이다. 그리고 유정에 많은 동학농민군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보고하기도 하였다. 현재 이 현산에는 예천문화원과 성당이 있다. 이곳이 조금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예천을 바라보면 너른 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8월 28일 밤, 예천 화지도회와 금당실의 동학농민군은 예천 읍내를 공략하였다.³³ 굴머리 전투 혹은 서정자 전투라고 부르는 전투가 이것이다. 예천 민보군은 서정(西亭)의 긴 제방을 에워싸고 동학농민군을 양면에서 협공하였다. 전투 상황은 “총탄이 떨어지는 숲속에서는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어지럽게 땅으로 떨어졌으며 검은 연기가 하늘에 가득 차서 적과 아군이 구분되지 않아 마구 죽었다”고 묘사하였다. 이 전투가 수행된 곳이 바로 서정자-굴머리-한천 일대이다.

전투 과정에서 민보군이 청북동 주민에게 산 위에 횃불을 많이 설치하여 군대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본진에서 총성이 울리거든 일제히 일어나서 소리를 질러 적병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하라고 시켰다. 이에 동학농민군은 한천에서 예천 동남쪽 서정자[西亭] 들로 퇴각하였다. 민보군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희생되었다.

서정자들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난 다음 날인 29일 안동도총소에서 보낸 구원병 3,500여 명이 예천 민보군에 합류하였다. 게다가 통역 등을 대동한 일본군 53명과 통역·화병(火兵) 10명도 합류하면서 예천 동학농민

32 「화지 대도회 해산 행진」, 『鶴樵傳』 1.

33 『甲午斥邪錄』 8월 28일조.

군은 크게 패하여 상주와 충청도 단양, 제천 등지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때 유천면 화지리와 용문면 금당실, 동학농민군 포덕소인 금곡포덕소 등이 소각되고 파괴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서정자들 전투 기념비(예천읍 서본리 91-1)

2023년 10월 12일(목), 1894년 음력 8월 28일에 벌어졌던 서정자들 전투를 기억하기 위해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서정자들(예천읍 서본리 91-1번지 일대)

위의 사진은 동학농민군이 민보군·일본군과 전투를 치르기 위해 숨어 있던 버드나무 숲[柳汀]이 있었고 전투가 벌어졌으며, 민보군에 밀려 퇴

각했던 서정자들의 모습이다. 동학농민군 11명이 생매장당하고 동학농민군과 민보군·일본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던 한천은 당시에 흘렀던 내[川]이기는 하지만, 제방을 쌓고 하천의 재정비하면서 천변의 모습이 현재와 같이 바뀌었다.

9) 동학농민군 지도자 全基恒(전도야지) 묘소 :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산 31

용문면 상금곡리 오미봉 입구에는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기항 의사 추모비 있는 곳>이라는 이정표가 마련되어 있다. 이정표를 따라가면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기항의 묘소를 확인할 수 있다.



동학농민군 지도자 全基恒(전도야지) 묘소

전기항의 묘소 앞 판석은 1996년 4월 5일 한식에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만들었다. 판석의 옆에는 5대손·손부, 6대손의 이름을 새겼다. 그 옆에는 全基恒(전도야지, 1827~1900)의 님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9년 <東學農民革命指導者 全基恒義士追慕碑>를 세웠다. 전기항이 활약했던 금곡포덕소의 접주는 권순문(權順文)이었다. 예천 보수집강소에서 전기항을 포착한 계기는 금곡(금당실) 동학농민군

32명을 붙잡아 조사할 때, 금곡의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전기항(전도야지)을 언급했기 때문이다.³⁴

전기항은 농민군의 모량도감(募糧都監)을 맡아서 경상도 북부 일대 농민군의 군량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전기항의 고손인 전장홍 님은 “고조부님 풍채가 워낙 좋아 ‘돼지’의 한문 표기인 豕刀也只로 불렸으며, 천석꾼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농이었으나 동학농민군의 군량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을 다 끌어다 써 집 안에 무쇠술 하나만 남았다”고 하였다.



전기항 의사 추모비 이정표



전기항 추도비

東學農民革命指導者 全基恒義士追慕碑

예천 읍내 공방전이 실패로 돌아간 뒤 전기항은 몸을 숨기기 위해 소백산맥 기슭에 12군데 움막을 만들어 놓고 번갈아 가며 머물렀고, 가족들 또한 수 대를 살아온 금당실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산으로 숨어 다니며 화전민으로 살다가 전장홍 님의 할아버지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한다.³⁵ 1999년 예천동학농민혁

34 『甲午斥邪錄』 9월 13일조.

명기념사업회는 전기항의 닛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전기항의 묘소 앞에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기항 의사 추모비>를 세웠다.

3. 맺음말을 대신하여 : 과제 및 활용 방안

1) 과제

본문에서 경상도 북부지역에서 가장 먼저 동학농민군 활동이 포착된 예천 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9곳을 살펴보았다. 경북 예천이라는 좁은 지역의 동학농민군 관련 유적지를 살폈음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1894년 8월 28일 서정자들에서 벌어졌던 동학농민군과 민보군(보수집강소 등) 사이의 전투는 금곡과 화지도회의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모양이다. 특히 화지도회에서 크게 활약한 인물이 박현성(朴顯聲)과 김노연(金魯淵)이다. 김노연은 화지의 접사(接司)로서, 동학농민군 11명을 생매장한 사건에 대해 보수집강소와 대화하기 위해 박현성과 함께 보수집강소를 찾아갔다가 잡혀 1894년 8월 28일 서정자들 전투가 벌어지는 사이에 피신하였다.³⁶ 이후 9월 동학농민군이 상주 객관을 점령했을 때 참여했다.³⁷ 박현성은 토치집주로서, 동학농민군 11명을 생매장한 사건에

35 「예천 금당실 모량도감 전도야지 전기항, 손부 나주 정씨·근고손자 장흥·방손 상춘」, 『다시 피는 녹두꽃』(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

36 「갑오척사록」 1894년 8월 28일.

37 「갑오척사록」 1894년 9월 27일.

대해 보수집강소를 찾아갔다가 대화가 불가능한 것을 파악하고 1894년 8월 28일 서정자들 전투에 참여하였고, 9월 상주 객관 점령에도 나섰던 인물이다. 또 다른 자료에 박현성(朴賢聲)도 등장한다. 그는 관동포 최맹순의 집 가운데 하나인 직곡포(稷谷布)의 접주인데, 1894년 2월 박학래가 입도한 접이다.³⁸ 한자를 다르게 썼지만 『학초전(鶴樵傳)』의 기록된 예천 보수집강소로 박현성을 보냈다는 내용 등을 살펴보았을 때 앞서 언급한 朴顯聲과 동일인이다.

예천 동학농민군으로 전기항 묘소만 추적되어 유적지로 언급되었다. 가장 먼저 소야에 접소를 세웠던 최맹순·최한걸 부자의 집이나, 토치접주 박현성, 화지접사 김노연, 모사대장 박학래, 최맹순·최한걸 부자와 함께 잡히고 함께 처형되었던 장복극, 예천 한천에 생매장당했던 전규선(全奎選, 1869~1894)³⁹ 등 예천동학농민군으로 활약한 인물들의 집터나 마을 등을 추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 가운데 전기항과 박현성, 박학래, 전규선의 후손이 있다. 전기항과 박현성, 전규선의 증언록은 이미 채록되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 아카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후손의 증언을 채록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된다면 이후 연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전규선 후손의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전부터 느껴 왔지만, 이번에 예천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자료와 함께 추적하면서 동학 연구자와 의병 연구자가 함께 연구해야 할 필요성

38 「鶴樵傳」 1.

39 「예천 금당실 농민군 전규선, 손자 두형」, 『다시피는 녹두꽃』(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

을 절실히 느꼈다. 예천 용궁에서 동학농민군에게 잡혀서 죽었던 다케노 우치 대위와 관련된 내용은 한말 전기의병 중 갑오의병에서도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다. 동학농민군도 스스로를 ‘의병(義兵)’이라고 칭하였듯이⁴⁰ 동학농민군 연구자와 의병 연구자의 교류가 필요하다.

2) 활용 방안

동학농민혁명은 1993년 7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대표 한승헌) 설립을 시작으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0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설립 및 2019년 2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천 지역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는 1996년 3월 예천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창립을 시작으로, 2021년 10월 4일 사단법인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전장홍, 부회장 김두년, 유진상, 사무총장 문제갑)가 창립되어 예천 지역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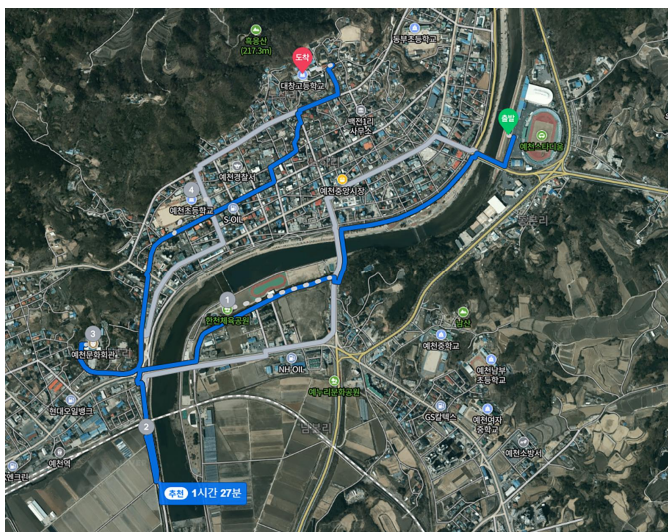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2022년 7월 예천박물관에서 예천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를 열었고, 9월 ‘128돌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2023년 5월에는 전기항 의사의 피신처를 찾아서라는 주제에

40 「갑오척사록」 1894년 8월 28일, “오늘 본읍 예천에서 도회를 열고 죄인들을 잡아들인 뒤에 한마음으로 왜를 물리칠 계획입니다. 같은 동토(東土)의 백성들인데도 만약 왜를 물리치려는 뜻이 없다면 하늘 아래에서 당신들이 옳은 것입니까? 도인들의 의(義)가 옳은 것입니까? 도인들은 의병(義兵)입니다.”

맞춰 문경 동로 ‘숫트맥이’ 일원으로 역사탐방에 나섰고, 6월에는 예천청 소년수련관에서 역사강좌를 열었다. 또 10월에는 서정자들 전투 기념비 제막식을 거행하였다.⁴¹ 또 11월에는 꽃재 일원으로 역사탐방이 계획되어 있다고 한다.

첫 번째 활용 방안으로 <역사체험 탐방 관련 코스>를 두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① 예천 읍내 동학농민혁명 역사탐방 코스 : 예천동학농민군 생애장터(예천스타디움) - 전투지 한천 - 전투지 서정자들 - 민보군 주둔지 현산(예천문화회관) - 예천 ‘보수집강소’ 본부 예천관아(예천초등학교) - 예천 ‘보수집강소’ 본부 건물(대창중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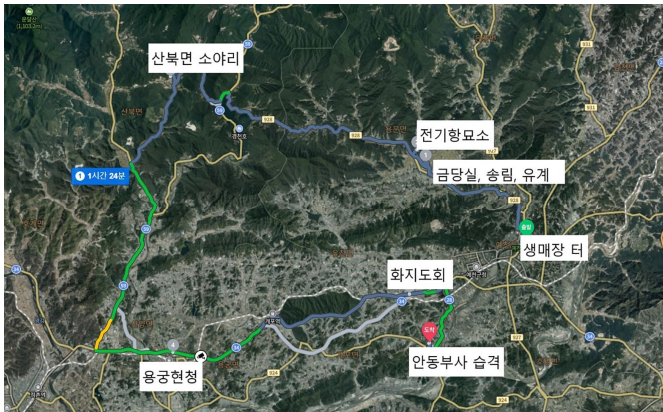


예천 읍내 동학농민혁명 역사탐방 코스

41 예천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블로그(<https://blog.naver.com/yd1894>)

예천 읍내 동학농민혁명 역사탐방 코스는 5.3km 걷기코스로,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곳곳에서 예천동학농민군 활동과 ‘보수집강소’의 활동을 설명하게 되면 그 시간보다 더 소요될 것이다.

② 예천군 동학농민혁명 역사투어 : 동학농민군 생매장 터(예천스타디움) - 동학농민군 근거지 금당실 - 동학농민군 전투지 금당실 송림 - 금곡포덕소 유계소 - 전기항묘소(용문면 상금곡리 산 31) - 예천동학농민군 접소 설치 장소이자 최맹순·최한걸 부자 집터(산북면 소아리) - 동학농민군이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공격했던 용궁현청(용궁면 읍부리) - 화지도회가 열렸던 유천면 화지리 - 동학농민군이 안동부사의 봇짐을 습격했던 경진가점(개포면 경진리)



예천군 동학농민혁명 역사투어

예천군 동학농민혁명 역사투어는 65km를 자동차 혹은 관광버스를 활용하여 이동하면서 투어를 하는 방식이다. 1시간 30분 정도 이동시간이 필요하지만 유적지와 관련된 설명이 추가가 된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두 번째 활용 방안으로 제시할 것은 관광안내 프로그램이다. 예천 출

신이 아닌 필자는 자료만으로 접한 동학농민혁명을 추적하기 위해 예천 일대를 다녔다. 다행스럽게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유적지로 설정해 둔 곳이 있어서 접근할 수 있었지만, 일반인이라면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소개할 수 있는 안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흔히 관광안내지도를 떠올리는데 예천군 관광안내지도에는 금당실이 있지만 동학농민군 활동 관련 내용이 아니라 전통마을로서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군 관광안내지도에 동학농민군 활동 유적지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동학농민군 활동 유적지 지도’를 새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 동학농민군 활동 유적지 지도는 곳곳에 위치한 관광안내소에 비치하여 관광객 혹은 관람객, 예천 군민 등이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예천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다운로드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활용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역사체험 탐방 관련 코스>를 진행할 때 필요한 해설사이다. 동학농민군 활동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해설사가 필요하다.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매월 역사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역사강좌를 해설사 양성을 하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천군에서는 관내 주요 관광명소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객 및 방문객에게 문화유적지의 역사적인 얼, 의미, 유래 등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관광지는 회룡포, 삼강주막, 용문사, 초간정, 금당실 전통마을, 장안사 등이고, 인원제한 없이 무료로 예약을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⁴² 장소를 보면, 금당실 전통마을이 있을 뿐 예천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를 설명할 수 있는 해설사 및 프로그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경상도 북부지역에서 동학농민군 활동이 가장 먼저 포착되었던 예천 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를 정리하고 활용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활용 방안은 이전의 프로그램과 별로 다르지 않지만, 활용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만들 때 기초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예천군,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등은 물론, 관련 기관과 정부 등의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

투고일 : 2023.10.29.

심사일 : 2023.11.14.

게재확정일 : 2023.11.16.

참고문헌

- 『甲午斥邪錄』
- 『渚上日月』
- 『羅巖隨錄』
- 『崇禎紀元後四戊午式司馬榜目』
- 『鶴樵傳』

1. 논문

- 고순희, 「근대기 국문실기 <학초전> 연구」, 『국어국문학』 176, 2016.
- 김영진, 「동학사상과 경상도 예천지역 양반의 디스토피아적 세계관 -『학초전』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60, 2021.
- 신영우, 「경상감사 조병호와 갑오년의 경상도 상황」, 『동학학보』 35, 2015.
- _____, 「1894년 영남의 동학농민군과 동남부 일대의 상황」, 『동학학보』 30, 2014.
- _____,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0, 2006.
- _____, 『갑오농민전쟁과 영남 보수세력의 대응 -예천·상주·김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_____, 「1894년 영남 서북부지방 농민군 지도자의 사회신분」, 『학림』 10, 1988.
- _____, 「1894년 영남 상주의 농민군과 소모영」상·하, 『동방학지』 51, 1986.
- _____, 「1894년 영남 예천의 농민군과 보수집강소」, 『동방학지』 44, 1984.
- 신진희,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최재목, 「19세기 경상도의 유교전통과 민족종교 동학 -동학 내의 '유교' 재평가를 곁에서-」, 『동학학보』 35, 2015.
- 채길순, 「경상북도 지역의 동학 활동 연구 -사적지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27, 2013.
- _____, 「경상북도 지역의 동학 활동 연구 -사적지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27, 2013.
- 윤인선, 「로고테라피의 실천으로서 『학초전』에 나타나는 자서전적 글쓰기」, 『문학과 종교』 25, 2020.
- 이광우, 「동학농민전쟁기 경상도 유림의 향약 시행」, 『민족문화논총』 68, 2018.
- 한경희, 「동학군 기록 『학초전』 고찰」, 『동학학보』 58, 2021.
- _____, 「『갑오척사록』에 나타난 예천 동학농민혁명 고찰」, 『동학학보』 61, 2022.
- 홍동현, 「1894년 동학농민군의 향촌사회 내 활동과 무장봉기에 대한 정당성 논리 : 경상도 예천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18, 2014.

2. 단행본

- 동학학회, 『동학의 문화유적 순례』 I (영남지역 2), 2001.

- 채길순, 『새로 쓰는 동학기행』2(경상북도·경상남도·북한편), 모시는사람들, 2021.
- 박성수 주해, 『저상일월』, 민속원, 2003.

3. 참고사이트

-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 서울대학교 규장각
- 국립민속박물관
-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
- 예천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블로그
-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경북 예천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현황과 활용 방안

신진희(안동대학교 강사)

이 글은 경북 예천 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경북 예천은 1894년 경상도 북부지역에서 가장 먼저 동학농민군 활동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예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총 9곳이다. 1) 예천에 가장 먼저 接所를 차렸던 최맹순 父子의 집터, 2)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鄉吏들이 조직한 ‘보수집강소’ 터, 3~4) 동학농민군 근거지였던 금곡포덕소와 금당실 마을, 5) 11명의 동학농민군을 생매장했던 곳, 6) 동학농민군이 결전을 위해 武器를 탈취했던 용궁현청, 7) 동학농민군이 결전을 위해 모였던 화지도회와 금곡도회, 8) 결전을 벌였던 서정자들, 9)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기항(全基恒)의 묘소가 있는 곳 등이다.

활용 방안으로는 유적지를 활용한 탐방프로그램과 해설사 양성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덧붙여 예천 동학농민군 가운데 전기항 외 김노연(金魯淵), 박현성(朴顯聲), 전규선(全奎選) 등 후손의 집터 등을 추적할 것과 후손의 증언 채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 前期義兵 연구자와 동학농민군 연구자의 교류가 필요한 점도 언급하였다.

이 글을 통해 예천 지역 동학농민군 활동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길 기대해 본다.

주제어 : 예천, 동학농민혁명, 최맹순, 생매장 터, 서정자들, 전기항

Abstract

Current Status and Utilization of Historic Sites Related to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Yecheon, Gyeongsangbuk-do

Shin, Jin-Hui(Andong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This article targets historical sites rel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Yecheon, Gyeongsangbuk-do. This is because Yecheon, Gyeongsangbuk-do, was the first to capture Donghak Peasant Army activities in the northern part of Gyeongsang-do in 1894. There are a total of nine historical sites fo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Yecheon. 1) They include the site of the house of Choi Maeng-soon's, the father and son(최맹순 부자), who first set up a Jeopso(接所) in Yecheon, 2) The site of the "BoSu-JipGangso(보수집강소)" organized by 鄉吏s to suppress the Donghak Peasant Army, 3~4) Geumgok Podeokso(금곡포덕소) and Geumdangsil Village(금당실 마을), which were the base of Donghak Peasant Army, 5) where 11 Donghak Peasant Army were buried alive 6) Yonggung Hyeoncheong, where Donghak Peasant Army seized 武器 for the battle, 7) Hwaji-dohoe(화지도회) and Geumgok-dohoe(금곡도회), where Donghak Peasant Army gathered for the final match, 8) The Seojeongja-deul(서정자들) where the battle took place, 9) the grave of the Donghak Peasant Army Leader Jeon Gi-hang(全基恒).

As a utilization plan, a tour program using historical sites and a commentator training program were presented.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the house sites of descendants such as Kim No-Yeon(金魯淵), Park Hyeon-Seong(朴顯聲), and Jeon Gyu-seon(全奎選), other than Jeon Gi-hang(전기항), should be tracked down and that the testimony records of descendants should be recorded. Finally, it was mentioned that exchange between the a righteous soldier(義兵) researcher and the Donghak Peasant Army researcher was necessary.

Through this article, I hope that the activities of Donghak Peasant Army in Yecheon will not be forgotten and remembered.

key word : Yecheon, Donghak Peasant Revolution, hoi Maeng-soon,
The Seojeongja-deul, Jeon Gi-hang